세계와 시민 4조 환경백과사전

기업적 차원

1. 삼성전자

- 세탁기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모드: 미세플라스틱 저감 모드 선택 시 ‘에코버블’, 즉 거품 형태의 세제가 섬유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빨랫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마찰력을 줄여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는 원리. 표준 모드 대비 미세플라스틱을 60% 정도 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 미세플라스틱 필터(개발 중): 배수구에 붙여 사용하는 형태로, 틈새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줄여 미세플라스틱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든 필터.

2. LG전자

- 미세플라스틱 저감 모드: 세탁 강도를 낮추어 빨래에 물과 세제가 확실히 스며들도록 하는 방식. 손빨래와 유사하게 ‘비비기’, ‘주무르기’ 등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표준 모드 대비 미세 플라스틱을 70% 덜 배출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

- 환경·사회·지배구조(ESG)형 주민참여 물환경 관리: 오염감시용 모바일 어플을 개발해 주민이 직접 댐 주변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신고하고, 자율관리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부유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댐 지역 일자리 창출과 부유 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

- 남강댐 주변지역 친환경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지역특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에코마켓 매장에서 유통, 판매, 홍보하는 친환경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인천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동기금(I-SEIF): 인천 소재 3개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인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금융지원, 교육지원, 판로지원 등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5. 동구밭

천연 성분과 유기농 인증 재료를 사용하여 고체비누, 고체샴푸, 고체세제 등의 생활용품을 생산, 판매. 기존 액체 형태와 달리 제품을 담기 위한 별도의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폐지를 재활용한 재생 종이로 포장돼 쓰레기를 최소화했다.

단어 예시

그린본드: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으로,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등의 친환경적인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다.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기구인 기후채권이니셔티브Climate Bond Initiative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금액은 2011년 약 12억 달러에서 2015년 약 41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예전에는 이 채권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범국가적 개발은행 주도로 발행되었으나, 최근 투자은행이나 일반기업과 같은 민간부문의 발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린스완: ‘불확실한 위험’을 나타내는 경제용어 블랙스완에서 파생된 단어로, 국제결제은행BIS이 2020년 발행한 ‘그린스완: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기후와 관련된 위험을 분석하여 금융 모니터링에 적용하는 것은 역학관계가 복잡하고 연쇄 반응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블랙스완과는 다르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후 위기에 의해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기존의 금융 위기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경고한다. 또한, 블랙스완으로 일어난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하고 되돌릴 수 있지만, 그린스완의 여파를 원점으로 회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녹색 요금제: RE100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한 별도의 전기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을 일반 전기보다 비싸게 파는 ‘녹색 프리미엄제’를 도입하여, 입찰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 국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국내 재생에너지의 발전 여건이 열악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

미세 플라스틱: 1㎛(마이크로미터)∼5㎜ 크기의 플라스틱. 애초에 작은 크기로 생산되기도 하지만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이 시간이 지나며 잘게 부서져 생성되기도 한다. 연안 지역과 수산물, 수돗물, 생수, 맥주 등에서 발견됐다.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통해 식탁까지 오르기도 하는데 인체에 유입된 이후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유의미한 연구가 없다.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 개개인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온실기체)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방자치체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탄소포인트는 전기 등의 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배출계수를 통해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한 후 감축된 이산화탄소 일정량에 대한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탄소포인트 산정 방법은 기준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의 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환산하는데 절감분 10gCO2 당 1포인트로 환산되며, 인센티브 상한액은 1포인트 당 3원 이내이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지방자치체에 따라 그 종류·규모·지급횟수 및 지급시기 등이 정해지는데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를 탄소캐시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OK캐시백 가맹점과 탄소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방앗간 프로젝트: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환경연합이 시작한 서비스로, 가정 내에 버려진 플라스틱들을 수집 · 분쇄 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재활용 선별장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자투리 플라스틱들이 해당된다. ‘참새클럽’ 회원자만 참여 가능한 서비스로, 참새클럽 회원은 2달에 1번 지정된 날짜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보낸다. 택배로 보낼 경우 배송비는 발송자가 선불로 부담해야 하며,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은 분쇄된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만든 튜브짜개와 같은 업사이클링 제품을 받는다.

RE100: Renewable Electricity 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 2014년 영국의 비영리단쳉ㄴ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 발족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 쓰는 방식이 있다.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50887.html>

<https://blog.lxinternational.com/28833/>

<https://gscaltexmediahub.com/esg/magazine-gsc-green-bond/>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3896>

<https://www.samsung.com/sec/sustainability/focus/story/patagonia-cooperation-case-study/>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0394.html>

<https://www.united.com/ual/en/us/fly/company/global-citizenship/environment.html>